어떻게 살 것인가?

견장일기
강 정 민
육군 1사단 도라대대 대위

모든 사람이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만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한다.

나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중대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군 생활 동안 얻은 교훈과 느낀 점, 철학, 앞으로 수행하게 될 GOP 중대장의 임무를 생각해보며 이 글을 쓴다.

먼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근본적인 이유는 '나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일까? 최근 읽었던 책과 개인적인 사색을 통해 얻은 행복이라는 개념은 '내 마음의 소리를 외면하고, 달아나지 않고 내 마음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미루어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나 자신을 죽기 전까지 돌보고 이러한 행복을 계속 느껴야 하다 보니 결국 행복은 '미완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해당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고전문학과 철학을 접했다. 여기에 공통으로 적혀있는 내용은 '모든 것은 순리대로'였다. 여기에서도 질문이 생길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운명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여기에 대한 내 답은 '아니다'이다. 내가 해석한 뜻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하늘의 뜻에 맡기고, 하늘에 뜻에 맡길 때 순리대로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을 기반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했다. 현재 나는 명확한 적이 있고, 전방을 지키는 GOP 중대장 취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나의 임무는 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 국민들이 밤에 편안히 잠 잘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 Fight Tonight의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 이것이 내가 GOP 중대장으로서 해야 하는 명확한 임무이다.

이런 명확하고 막중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 나는 '내가 지휘한 대로 나의 중대원들이 적이 눈앞에 있는 최전방에서 실행에 옮길 것이고, 잘못된 명령에 대한 대가는 내가 지휘하는 중대원들이 가장 먼저 치르게 된다'를 명확히 인식하고 기본과 기초에 충실하고 솔선수범하는 중대장이 돼 합리적인 지휘와 올바른 판단을 하는 지휘관이 되겠다. 더불어 춘풍추상(春風秋霜)의 마음가짐으로 자신에게는 냉철하고 엄격하게 부하들에게는 존중·배려의 마음을 바탕으로 지휘하는 중대장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에 이 글을 읽는 모두에게 군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을 추천해주고 싶다.

※ 본 지면에 게재된 글들은 본지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국방일보 발행인 박창식 편집인 이승복(직대)
1964년 11월 16일 창간(일간) | 2010년 7월 1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337 | 인쇄인 장대환
독자관리 발송문의(구독신청 주소변경) 02-2079-3851~2 | 팩스 02-757-9309
인터넷 kookbang.dema.mil.kr | 04353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편집팀	편집 02-2079-3770~85	군)947-3770~85
	교열 02-2079-3791~4	군)947-3791~4
디지털취재팀	02-2079-3730~42	군)947-3730~42
디지털기획팀	디지털뉴스 02-2079-3710~4	군)947-3710~4
	국방저널 02-2079-3715~6	군)947-3715~6
사진팀	02-2079-3760~3	군)947-3760~3
광고문의	02-2079-3123	군)947-312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

조명탄
이 지 환
정형외과 전문의·작가

판도라가 상자를 열자 욕심, 시기, 원한, 질투가 쏟아져 나왔다. 세상이 불안해졌다. 급히 닫은 상자에는 희망이 남았다. 불안에 빠진 인간은 희망을 품었다.

동생을 찾아가던 좁은 길, 우리 가족은 명륜 3가 고깃집에 주차를 하고 돼지 갈비를 먹는다. 동생은 수험생이다. 나는 맥주를 시켰고 동생은 마시지 못한다.

책이 두껍다. 동생은 여러 번 읽었다고 했다. 애잔한 걱정은 조언으로 끝난다. 완벽히 공부하고 문제를 풀겠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목차만 읽어도 내용이 보여야 한다. 알 법한 얘기만 늘어놓고 노란 장판이 깔린 작은 방을 나왔다.

동생은 합격했다. 축하와 함께 비로소 물었다. 어두운 터널 같은 고시생 시기를 어떻게 완주할 수 있었는지. "나에겐 시작조차 버거운 일 일거야. 네가 해온 공부는, 사실 합격하지 못하면 증발해 버리잖아. 시간을 회수할 수도 없고. 넌 그 불안을 어떻게 극복했어?"

동생이 말했다. "확률이 토대한 가능성과, 합격하지 못한다 해도 내 삶이 심하게 훼손되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었어."

동생은 알 수 없는 미래에 희망을 걸고 불안을 깨트려 나갔다. 내 방식과 달랐다. 나는 불안을 피하기 위해 최악을 상상한다. 그리고 최악을 깨부수며 불안을 극복한다.

처음 집도한 수술 전에 불안을 느꼈다. 쉬운 수술이 아니었다. 무릎 관절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후방 십자인대를 관절경으로 재건하는 수술이었다. 어디에 터널을 뚫을지, 각도는 어떨지, 동반 손상은 있는지, 어떻게 고정시킬지, 고려할 사항이 많다. 수술 감각도 중요하다. 카메라를 쥔 오른손은 무릎 관절 뒤를 찍고, 기구를 쥔 왼손은 무릎 앞을 타고 넘어다녀야 한다.

환자의 X-ray와 MRI를 수도 없이 봤다. 하도 오래 봤더니 세상 모든 무릎이 이 환자처럼 생겼을 것 같았다. 교과서는 물론이고 최신 지견이 담긴 논문도 20편 넘게 읽었다. 무릎 수술 대가의 수술 영상을 어찌나 많이 검색했는지, 웹 사이트는 내가 로그인할 때마다 '로봇'인지 물었다. 수술 시뮬레이션도 했다. 손을 씻고 피부에 절개를 가하는 순간부터, 이식편이 들어가고 봉합을 마치는 순간까지, 작은 디테일 하나 놓친 것은 없는지 꼼꼼히 상상했다.

수술이 시작됐다. 마취된 무릎을 붙잡는 순간, 어제도 했던 수술인 마냥 익숙했다. 결과도 좋았다. 수술 전 계획은 확실했고, 수술 중 결정은 적절했고, 수술 후 X-ray는 깔끔했으며, 환자의 재활도 훌륭했다. 비로소 불안이 해소됐다.

나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를 강박적으로 몰아붙였다. 나쁜 상상을 하고, 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며 불안을 제거한다. 이 방식이 마음에 들었다. 위기를 극복하는 내가 기특했다. 환자에게도 좋다. '수술이야 어떻게든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의사보단 든든하지 않겠는가?

동생 말을 듣고 깨달았다. 내가 극한의 위기로 나를 던질 수 있던 까닭은 내 삶이 안전하다는 굳건한 믿음 덕분이었다. 삶의 태도를 결정하던 시기, 의대생인 나는 '의사고시를 합격하면' 삶이 힘들진 않겠다는 믿음이 있었다. 오히려 그 안락함에 길들여지기 겁났고, 그래서 스스로를 위기에 던져 넣으며 두려움을 달래는 습관이 들었다.

역설적으로, 나는 삶이 안전하다고 느꼈기에 두려움을 상상하며 극복해왔다. 불안하지 않기 위해 불안을 상상한다. 반대로, 삶이 안전치 못하다 느낀다면 안전할 미래를 희망해야 한다. 그래서, 희망의 목소리는 불안한 삶의 울먹임일지 모른다. 지친 누군가는 희망을 얘기해야만 한다. 희망이 없다면 두려운 지금을 참아내기 어렵다.

판도라가 상자를 열자 욕심, 시기, 원한, 질투가 쏟아져 나왔다. 세상이 불안해졌다. 급히 닫은 상자에는 희망이 남았다. 불안에 빠진 인간은 희망을 품었다.

누구나 부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쓴 '훈민정음 노래'

특별기고
박 재 성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이사장

"함께 노래 부르면서 믿음을 쌓고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 겁나는 시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몸짓이 아닐까?"

2015년 10월 24일 네이버 쉼 편집위원회 추천사 중에서 나온 말로 기억한다.

이처럼 노래란 어떠한 도구 없이 사람의 목소리만 있으면 할 수 있으므로 가장 원초적인 음악 표현의 방법이라고 한다.

즉, 감정을 표현하거나 느끼게 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도 훈민정음을 노래로 부를 수 있다면 훈민정음기념사업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취지를 알리는 데 굉장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지난 2020년 11월 13일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던 '훈민정음탑 건립조직위원회 발족식'에서 필자가 쓴 '훈민정음 28자' 시(詩)에 김현 작곡가께서 곡을 재능 기부하고 가수 청아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불러주게 되면서 첫 훈민정음 노래가 나왔다.

나의 졸문에 곡이 붙어서 노래로 불린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워서 그때의 벅찬 감동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이 노래에 관심을 둔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가사 내용이 '잃어버린 훈민정음 네 글자'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대중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훈민정음에 관심을 두고 이 노래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생각한 터라 그들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하고 고심하던 중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말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것은 K-Classic을 이끄는 한국 합창의 대표 작곡가로 명성이 자자한 오병희 작곡가께서 필자가 새로운 가사를 쓰면 작곡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기에 필자의 천학비재(淺學菲才)를 망각한 채 다음과 같은 '훈민정음 노래'라는 제목의 가사를 써보았다.

(1절) 삼천리 금수강산 터전을 잡고 / 반만년 오랜 역사 이어온 겨레
거룩한 세종대왕 등극하신 후 / 무지한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
새롭게 만든 문자 훈민정음은 / 수많은 언어 중에 으뜸이라네
(2절) 천지간 음양오행 원리에 기초 / 천문도 이십팔 개 별자리같이
자모음 이십팔 자 글자의 모양 / 볼수록 아름답게 자연을 담은
신비한 창제원리 훈민정음은 / 세계의 글자 중에 으뜸이라네
(3절) 하늘땅 사람의 도(道) 이치를 담고 / 대우주 기운 품은 하늘의 소리
세상의 온갖 소리 쓸 수 있기에/ 새 세상 밝혀주는 스물여덟 자
위대한 소리글자 훈민정음은 / 세계화 물결 속의 으뜸이라네

전문 작사가들의 질정을 바라면서도 언감생심(焉敢生心), 이 노래를 부르는 이는 물론 듣는 이에게도 '훈민정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분명하게 전달되기를 희망한다. 왜냐하면, 가끔 제대로 꽂히거나 중독성이 강한 곡이나 가사를 들었을 경우 나중에도 머릿속에서 무한 반복되는 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꿈이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오병희 작곡가가 약속을 지켜주어서 이 '훈민정음 노래'가 6일 오후 7시 30분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수원)에서 아가페콰이어 정기연주회곡 중 선곡되어 발표됐다. 훈민정음 창제 578년을 맞이하는 한글날은 더욱 의미 있는 날이 될 것 같다.